

정부의 우유생산 조절실시요령 (안) 이 철회될때까지



지난달 우리는 원유생산 조절과 치즈 공장 합작투자 설립이라는 문제대두로 어려운 곤경에 처했었으나 전국의 회원들이 한데 뭉친 결과 이를 저지하고 우리의 대안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번호에는 우리의 대안이 관철되기 까지의 과정을 요약해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5월 17일

지난4월의 분유재고는 성수기인 5월로 접어드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1만1천여 톤에 이르러 낙농가들은 유대 지급 지연이라든가 유대대신 분유지급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처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우유에서는 뉴질랜드의 낙농공사와 80 : 20의 원료사용 비율을 전제로 한 치즈공장을 합작투자 설립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이에 본회 구리 지회장 고영화등 44명의 대원이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이러한 공장설립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5월 17일 본회에 접수했다.

5월 20일

제4회 이사회개최

협회정관 제23조 2항에 의거 임시총회를 5월

28일 반도 유스 호스텔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5월 28일

긴급입시총회 개최

서울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임원 20명, 대의원 60명 회원 60명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입시총회를 개최하여 치즈수입을 전제한 유가공 공장 설립반대와 쇠고기 수입반대등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낙농육우회보 87년 6, 7월호 42-45p 참조)

신을 받았다(대축 01254-537호)

7월 11일

농림수산부의 우유생산 조절 실시요령(안) 행정예고

우유생산조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실시요령을 행정예고하였다.

7월 11일

농림수산부의 우유생산 조절 실시요령(안)에



또한 시기를 선택하여 전국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6월 11일

농수산부 장관과 국회 농수산위원장에 원료 치즈 및 쇠고기 수입반대 건의서 제출(한낙육 제87-85호)했으면

롯데 그룹 회장에게도 「원료치즈 수입을 전제한 치즈공장·합작 투자 설립 재고 요청」 공한을 발송했으나 롯데측에서는 아무런 의사나 반응의 표시가 없고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는 앞으로의 정부정책 추진에 적극 참고하겠다는 회

대한 낙농가의 의견을 7월 20일까지 협회에 제출토록 임원 대의원, 낙우회, 기업목장에 공문 발송(문서로 접수된 의견 분석결과 총 42건중 내용상의 수정이나 보완요구가 10건, 선행과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생산조절 실시는 전면 거부가 32건 이었음.)

7월 28일

제5회 이사회 개최

전국의 낙농가 의견을 취합한 결과 선행조건의 구비없이 정부의 생산조절안은 실시될 수

없다는 여론이므로 정부안을 전면 거부하기로 의결하고 협회대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5월28일 임시 총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전국규모의 전국낙농육우인 대회를 열기로 하고 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지재선 이사, 박인철 감사, 유인명이사, 강춘성이사, 손병태이사, 윤민호 남원낙우회장 등 6인)

7월 30일

추진소위원회 개최

전국낙농육우인대회 개최를 8월10일 여의도

농림수산부에 전국 낙농육우인대회 개최 결정을 구두 보고 하였으며 이에 축산국장이 8월3일 12:00추진위원과의 면담을 요청해왔으나 상황을 더 관망기로 하고 거절했다.

8월 3일

- 전국 낙농육우인대회 관련 개최사실에 대해 축산시보에서 첫번째 호의를 발행하는 기록을 남겼으며 협회에서는 전국낙농육우인대회 개최계획을 임원 지회, 낙우회, 기업 목장등에게 발송했다(한낙육 제87-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기로 결정하고 장소예약, 세부계획등을 협의했다.

7월 31일

협회대안 농림수산부 제출

제5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협회의 우유생산조절(안)에 대한 대안을 농림수산부에 제출했다. (낙농육우회보 8월호 26~28p참조)

8월 1일

112).

- 정부의 우유생산조절 실시에 대한 협회대안을 전국 지회 등에 발송했다(한낙육 제 87-111호).
- 농림수산부에서는 협회장과의 면담요청으로 농림수산부를 방문했으나 방문당시 장관주재로 축산국장등과의 회의 중이라 면담을 하지 못했다.

8월 4일

- 김의수 회장과 김남용전무가 농림수산부를 방문하여 제2차관보와 축산국장과의 면

답을 통해 낙농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 전국 낙농육우인대회와 관련하여 일간신문 보도(조선일보 매일경제등)
- 축산국장으로 부터 본회의안에 대하여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해 왔다.
- 8월5일의 긴급이사회 및 8.10대회추진 소위원회 소집 통보(전통)

8월 5일

긴급이사회 및 추진위원회 개최

협회 지하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는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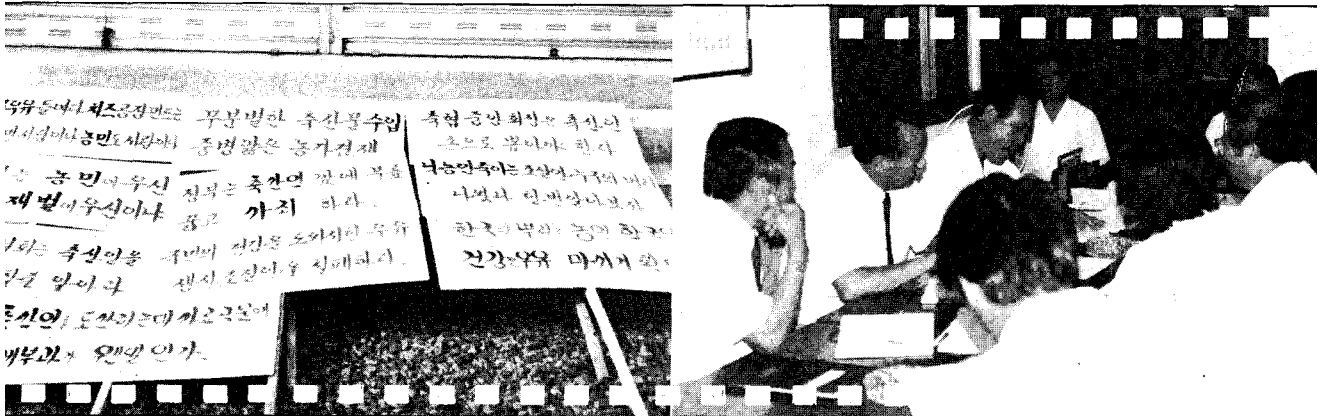
재의 우유체화 상태하에서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유가공업체가 유대를 지연하거나 분유로 대체 지불하는 경우와 원유검사에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등이다.

8월 6일

축산시보 호외 발행

협회의 의견을 정부가 대폭 수용키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 전국낙농육우인대회의 무기연기



의수 회장의 24명의 임원과 농수산부 축산국장이 참석하여 대책을 철야협의중 농수산부장관과 민정당 이철우의원이 출석하여 협회가 요구한 사항을 전폭수용하겠다는 약속과 이날을 기점으로 10일이내에 정부의 방침을 공식발표한다는 약속에 따라 대회장행을 일단 연기하기로 하고 6일02시30분에 회의를 종결 했으며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약속한 주요 3개 사항은

- ① 우유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예고를 철회하는 방안으로 본회의 대안에 대해 전면 검토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수렴하겠다.
- ② 치즈 원료 수입을 전제로한 치즈 공장 합작투자 설립에 대해 우유 수급 조절상 현

에 대한 제2회 호외발행,

8월 6일

전국 낙농육우인대회 무기연기 통보 전국 지회, 낙우회 및 기업목장 등에 우리의 요구가 관찰되었기에 대회를 무기연기한다고 통보(전통 및 문서)
(한낙육 제87-115호)

8월 14일

정부대책 발표

정부는 당초 약속시간인 8월 14일 다음의 5개 사항을 발표했다.

- ① 중고등학생에게도 우유의 확대급식을 확대함
- ② 대대적인 우유소비캠페인을 전개함
- ③ 유제품 수입을 최대한 억제할 것임.

④ 원유대의 조속한 지급을 위한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할 것임.

⑤ 현재와 같은 우유생산이 과잉되는 상태에서는 원료치즈의 수입을 전제 한 합작투자는 허용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

〈원유생산조절 및 치즈공장 합작투자 반대에 관련된 신문내용들〉

The collage features several prominent headlines and articles:

- 「롯데치즈」에 낙농가들** (Farmers' Reaction to Lotte Cheese)
- 조원료輸入 決死반대** (Opposition to Raw Milk Import Decision)
- 韓國經濟新報** (Korea Economic New Paper)
- 酪農肉牛協 臨總** (General Meeting of Dairy and Beef Cattle Association)
- 9개항決議文 채택** (Adoption of 9-Item Resolution Text)
- 대체가능乳製品수입론** (Debatable Import of Substitute Dairy Products)
- 酪農중장기 綜合추진計劃 마련** (Preparation of Comprehensive Medium-Long Term Plan for Dairy)
- 치즈공장 合作設立** (Establishment of Cheese Factory Joint Venture)
- 酪農肉牛協 理事會 열고 다각검토** (Dairy and Beef Cattle Association Board Meeting and Multi-angle Review)
- 農시회 임사** (Agricultural Market Association Meeting)
- 현안問題 해결 등 촉구** (Urging Resolution of Current Issues)
- 후향 集中論議** (Retrospective Concentrated Discussion)
- 장미생활** (Rose Life) - Advertisement for a lifestyle magazine.
- 장티푸스** (Typhoid) - Advertisement for a medical product.

본회는 지난 8월 14일 농수산부에서 본회와의 8월5일 긴급이사회석상에서 약속한 정부의 대책을 공식 발표한 것을 전문 그대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1. 농림수산부는 '84년이후 우유생산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발생한 수급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유생산조절제에 관한 행정예고를 통하여 7월말까지 각계의 진지한 의견을 수렴한 바, 보완하여야 할 과제가 있고 생산자 및 유가공업체간의 의견이 여러가지로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예고된 안은 시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2.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우유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첫째, 중·고등학생에게도 우유의 학교급식을 확대함.

현재 117억원을 투입하여 국민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왔으나, 오는 9월, 2학기부터는 20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중·고학생에까지도 학교우유급식을 확대하고자 함.

이로써 학교우유급식 대상학생수는 모두 600만명이 되며 이에 대한 지원액은 137억원에 달함.

둘째, 대대적인 우유소비캠페인을 전개함.

오는 8월24일부터 전국적인 순회강습회, 유제품전시회 및 가두우유무료시음행사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우유소비캠페인을 벌이고자 함.

우유는 국민건강을 위한 완전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미국과 서구선진국에서는 1인당 우유소비량이 300~500kg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대만, 일본에서도 각 40kg, 70kg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8kg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아직도 우유소비 저변확대의 여지가 크다고 하겠음.

셋째, 유제품 수입을 최대한 억제할 것임.

'84년이후 전지분유 수입은 일절 허용치 않고 있으며, 현재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되고 있는 유당, 카제인, 유장분말도 최대한 수입을 억제해 나가겠음.

넷째, 원유대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할 것임.

유가공업체가 낙농가에 지불할 유대의 지원이 지연되거나 분말로 대신지급하는 사례가 일절 없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는 한편, 사료용 우유로 공급한 분유대금 28억원을 축진기금에서 즉시 지불하고 유가공업체가 추가로 용자를 희망할 경우 원유수집자금도 적극적으로 용자 지원할 것임.

다섯째, 현재와 같은 우유생산이 과잉되는 상황에서는 원료치즈의 수입을 전제로 한 합작 투자는 허용하지 않도록 협의 추진해 나갈 것임.

3. 농림수산부는 낙농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계속 연구 발전시키기로 함.